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사우디아라비아

Kingdom of Saudi Arabia

2019년9월24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인구 33.2백만 명 (2018 ^e)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 국왕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7,824.8억 달러 (2018 ^e) 	1인당GDP 23,556.4달러 (2018 ^e) 	통화단위 Saudi Riyal (SR) 	환율(U\$기준) 3.75 (고정환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의 17.2%에 달하는 2,977억 배럴의 원유 (세계 2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부국이며, 중동 내 최대 GDP 규모를 지닌 경제대국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환율 및 물가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슬람 맹주국으로 시아파 이슬람 대표인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으며, 이란의 공격적인 중동 지역 세력 확장 움직임(expansionism)을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이란 반대 세력을 적극 지원하며 막대한 군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주요 중동 동맹국으로서 서방 국가들에 석유자원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등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높아 2019년 국제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가 전망됨.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로 산업다각화 등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비석유 부문 육성 및 이를 통한 실업난 해소는 다소 부진한 상황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6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1975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75년), 항공협정(1984년),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년), 투자협력협정(2002년), 투자보호협정(2003년),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8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2년), 국방협력협정(2014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5,640,828	5,135,067	3,946,075	석유류, 자동차, 철강
수입	15,741,672	19,590,480	26,335,229	원유, 유류제품, 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6월말 누계, 총 투자기준) 245건, 5,048,24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4.1	1.7	-0.7	2.2	1.8
소비자물가상승률	1.3	2.0	-0.9	2.5	-0.7
재정수지/GDP	-15.8	-17.2	-9.2	-4.6	-7.9

자료: IMF, EU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OPEC+ 감산정책으로 국제유가 부양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은 세계 2위 원유 확인매장량 보유국 및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으로,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시장 지배자격인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해 옴.

* 자국 석유생산량 조절이 글로벌 석유시장 전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유국을 의미

- 2014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부양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과 러시아 등 비회원 10개국은 OPEC+를 결성하여 2017년부터 6개월마다 감산 합의를 갱신하고 이행해 옴.

국제유가 변동 추이



자료: OPEC(2019년은 1~8월간 국제유가)

- OPEC+는 2019년 1월부터 일평균 약 120만 배럴 감산 합의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OPEC 회원국 81만 배럴 감산 및 비회원국 38만 배럴 감산)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해당 조치를 2020년 3월말까지 연장기로 합의함.

OPEC+ 감산 합의 내용

(단위 : 천 배럴/일)

구분	생산 능력	감산 합의	감산 후 생산량
OPEC 회원국	26,749	-812	25,937
사우디아라비아	10,633	-322	10,311
OPEC 비회원국	18,320	-383	17,937
러시아	11,421	-230	11,191
전 체	45,069	-1,195	43,874

국내경제

미국의 셰일원유 생산으로 OPEC+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효과 상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 저해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동맹국이나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으로서 저유가를 지향하는 바, 국제 유가 정책에 있어 고유가를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반대 입장임.
- 미국에 풍부한 셰일원유는 일반적인 유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하며 셰일(퇴적암) 층 사이에 갇혀 있는 원유를 추출해야 하는 바 전통적인 시추방법으로 생산이 어려워 외면받아 왔으나, 채굴기술의 진화로 채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원유 수입국이던 미국은 셰일원유를 수출하기에 이룸.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OPEC+ 산유국들이 감산으로 국제유가를 부양하면 미국은 셰일원유 채산성 증가로 증산하게 되는 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모두 겪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국제유가 부진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함. 2019년 1~8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64.71달러 수준으로 전년(배럴당 68.78달러) 대비 하락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확대될 전망이다(2018년 -4.6% → 2019년 -7.9%).

* OPEC Basket Price (OPEC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14개 대표 유종 가격을 가중평균한 원유가격)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소진해 왔으나,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고 있음.

2016년 이후 사우디 정부의 국채 발행 현황

발행 형태		국제 채권(Global Note)		이슬람 채권(Sukuk)		합 계
발행 통화		달러화	유로화	달러화	리알화	
발행 회 수		4회	1회	2회	12회	19회
발행 금액	달러화	U\$485억		U\$110억	-	U\$595.0억
	유로화 (달러환산)		€30억 (U\$33.9억)			€30.0억 (U\$33.9억)
	리알화 (달러환산)	-		-	SR1,469.5 (U\$391.9억)	SR1,469.5억 (U\$391.9억)
	합계(달러)	U\$485억	U\$33.9억	U\$110억	U\$391.9억	U\$1,020.8억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

소비자물가 완화 전망

-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및 연료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였으나, 2019년 들어 임대료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완화될 전망이다.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 및 원유시장 불안 확대

- 9월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Aramco의 핵심 석유시설 2곳*이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비행기(드론) 공격을 받아 일평균 약 5.7백만 배럴(생산능력의 절반 이상) 규모의 원유 생산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피해시설의 복구기간에 대해 최단 10주에서 최장 1년 등 전망이 다양하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임.

* 아브카이크(Abqaiq) 소재 탈황, 정제 시설 및 쿠라이스(Khurais) 유전

- 국제유가는 13일 배럴당 60.02달러 수준이었으나 공격이 있는 14일 이후 급등하여 16일 66.43달러, 17일 67.88달러에 달하였음. 23일에는 배럴당 64.51달러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지정학적 위험 증가는 물론 석유 인프라 시설이 드론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유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해 지역 및 모습



자료: The Economist, 동아일보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56,724	-23,843	10,464	72,337	21,980
경상수지/GDP	-8.7	-3.7	1.5	9.3	2.9
상 품 수 지	44,265	55,764	98,461	170,504	122,009
상 품 수 출	203,537	183,607	221,862	294,544	253,929
상 품 수 입	159,271	127,843	123,401	124,041	131,920
외 환 보 유 액	603,986	526,064	486,634	486,417	488,978
총 외 채	90,445	158,903	190,491	212,491	221,991
총외채잔액/GDP	13.8	24.6	27.7	27.2	29.1
D.S.R.	2.2	2.9	4.2	4.0	5.3

자료: IMF, EIU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감산 영향으로 총수출은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가격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최대 원유 수입국인 미국의 원유 자체 생산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으며, 원유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으로 원유 수출 가격 및 수출량이 모두 하락하여 2019년 총수출은 마이너스(-10.4%)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9월 14일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의 여파로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총수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전년대비 열위한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달러당 3.75리얄의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 하락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실질환율 상승 위기상황에도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통해 실질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옴.
- 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점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이 국제유가 하락과 감산 정책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재정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D.S.R.(2018년 4.0% → 2019년 5.3%), 총외채잔액/총수출(2018년 64.0% → 2019년 74.6%), 총외채잔액/GDP(2018년 27.2% → 2019년 29.1%)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열위해짐.

구조적취약성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감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현저한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어 2019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모두 전년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고유가 시대에서는 풍부한 오일머니로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국민들을 고용해 왔으나,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한계에 직면함.

연도별 국제유가 및 사우디 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유가	배럴당 달러	49.49	40.76	52.43	68.78	64.71
재정수지/GDP	%	-15.8	-17.2	-9.2	-4.6	-7.9
경상수지/GDP	%	-8.7	-3.7	1.5	9.3	2.9

자료: OPEC(2019년은 1~8월간 국제유가) IMF WEO(2019년 4월), EIU

성장잠재력

미국 셰일원유 개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장잠재력 희석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위의 풍부한 원유 확인매장량을 바탕으로 석유수출기구(OPEC)를 주도하며 원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를 조종해 왔으나, 미국의 셰일원유 개발 및 증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 지배력 약화는 물론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희석됨.

생산가능인력 풍부하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난 지속

-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33백만 명으로 그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2%이며, 인구의 2/3가 30세 미만으로 젊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 산업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13%에 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책성과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 주도로 경제개혁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기존 고유가 상황에서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공공 부문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제유가 약세가 장기화되자 민간 부문 육성 및 경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아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실상의 군주인 Muhammad bin Salman(약칭 MbS) 왕세자의 주도로 기존 폐쇄적이었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자국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49%)을 폐지함.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경제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2019년 3월 공공투자펀드(PIF)*가 국영 석유화학기업 SABIC의 지분 70%를 국영 석유회사인 Aramco에 매각하여 69억 달러를 확보한 바 있음.
 - * PIF는 MbS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국부펀드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해 해당 펀드의 운용자산을 2조 달러 규모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Aramco*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Aramco 상장 시기는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임. 다만, 2019년 4월 공개된 Aramco의 순이익은 1,111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2위인 애플(594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분 100% 보유

경제의 점진적 개방으로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추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존 고유가 상황에서는 풍부한 경화가 유입되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 국제유가 약세가 장기화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10월 내각 결의를 통해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운송업, 부동산 중개업, 방송업, 고용 알선업 등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등 경제 개방 정책 추진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17년 14억 달러에서 2018년 3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35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
- 다만, 자국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앞 부과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및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부양가족세를 매년 인상하는 등 사우디인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함.

사우디인 고용의무 확대 정책

(단위 : 리알/월)

구분		2017	2018	2019	2020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우디인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200	400	600	800
	외국인 근로자 수와 사우디인 근로자 수가 동일한 경우	-	300	500	700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세(1인당)		100	200	300	400

정치동향

연로한 Salman 국왕을 대신하여 MbS 왕세자가 사실상의 군주로 통치

- Salman 국왕(1935년생)은 연로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후계자인 MbS 왕세자(1985년생)가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있음.
- 당초 MbS 왕세자는 부왕세자로 책봉되어 왕세자였던 사촌 Muhammad bin Nayef 왕자에 비해 왕위 계승에서 후순위였으나, 2017년 6월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감금 및 압박하여 왕세자 지위를 찬탈함.
- 2017년 11월 MbS 왕세자는 반부패 조사 명목 하에 왕자, 장관, 기업인들을 대거 체포함으로써 왕위 승계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여, 향후 왕위 계승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MbS 왕세자는 정·재계 고위인사 200여 명을 자금세탁 및 뇌물 등 혐의로 리야드 내 호텔에 구금하여 조사하였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자산을 국고에 헌납하면 석방하고, 부인하면 교도소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는데 이때 걷어들인 자금이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왕위 계승시 MbS 왕세자는 1985년생의 젊은 군주로 장기집권이 예상되는 바,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사회동향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시위 발생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원인 석유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수 위축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자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 일자리 창출 실패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시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국제관계

미국과 동맹, 시아파 이란과의 적대 관계 지속

-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역내 숙적인 이란의 공격적인 중동 지역 내 세력 확장 움직임(expansionism)을 견제하기 위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이란의 반대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이란은 Houthi 반군을 지원하며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2019년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석유 펌프장, 공항, 격납고 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들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음.
-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가의 결정적 원인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임.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을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미국-이란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으며, 2019년 6월에는 이란이 미국 무인비행기(드론)을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함(이후 미국이 이란 드론을 격추함으로써 보복).
- 2019년 7월 미국이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500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으로 발표하는 등 미국-이란 간 군사 갈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나,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대비하여 전쟁 등 정면충돌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함.
 -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으로써 유가상승에 민감한 바, 미국-이란 군사적 충돌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및 소비력 저하가 초래되어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서방과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서방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반정부 언론인 Jamal Khashoggi 살해 사건 등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국제사회는 서방 국가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발생한 반정부 언론인 Jamal Khashoggi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예멘 내 과도한 공습으로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 시설 파괴 및 어린이를 포함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 유입을 위해 고유가를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써 저유가를 선호하여 양국은 국제유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낮아 외채상환태도 양호

- 2019.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23,892.0백만 달러(단기 1,292.9백만 달러, 중장기 22,599.1백만 달러) 중 114.9백만 달러를 연체 중이며 이는 전체 지원잔액의 0.5% 수준으로 외채상환 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등급
Moody's	A1	A1
Fitch	A+	A+

국제시장평가는 종전 평가 시점과 동일

- 2019년 1월 개최된 OECD CRE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과도한 석유의존도, 재정수지 적자 지속 등을 언급하며 3등급으로의 등급 하향 의견도 있었으나, 미국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당시 국제유가 상승 추세를 이유로 2등급을 유지하였음.

- 국제유가는 2019년 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으로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임.

2019년 국제유가 변동 추이

(단위 : 달러/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3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3일
국제유가	58.7	63.8	66.4	70.8	70.0	62.9	64.7	59.6	60.0	66.4	67.9	64.6	64.4	65.3	64.5

자료: OPEC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중동 최대 GDP 규모를 지닌 경제부국이나, 높은 석유의존도 및 국제유가 약세로 인해 2019년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경제지표는 악화될 전망이다.
- 한편, 2019년에도 월평균 수입액 25개월분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환율 및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구조 다변화 및 외국인 투자자들 앞 경제개방 등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신인도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으나, OECD 및 신용평가사들은 종전 평가 시점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